

아프리카 색 짙은 브라질 바이아

생기 넘치는 아프로 브라질리언 문화를 찾아 브라질 바이아 해변으로 떠났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고운 모래사장, 흥겨운 밤 문화는 덤이었다.

Rhythmic Roots

The palm-fringed coast of Bahia is sprinkled with sleepy fishing villages that are revered for their powdery beaches, exciting nightlife and thriving Afro-Brazilian culture.



베림바우의 흥겨운 선율이 울려 퍼지자 춤꾼 두 명이 힘껏 도약해 허공에서 빙빙 돌며 격투 장면을 재현했다. 코코넛나무가 줄지어 선 해변가는 이 공연을 보러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연주자가 원통형 타악기를 힘껏 두드리자 다른 이들은 박수를 치며 카포에이라 노래로 화답한다. 카포에이라는 아프리카 서남부에 위치한 앙골라에서 행해진 전투 의식을 기원으로 한 무술로, 아프리카 노예에 의해 브라질에 전해져 토착화 과정을 거치며 발달했다. 당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포르투갈인을 속이기 위해 격투술에 노래와 춤을 가미했다고 한다. 나는 구경꾼들 사이에서 춤꾼들의 현란한 동작을 지켜봤다.

브라질 중동부 바이아 주는 아프리카와 브라질 혼합 문화인 아프로 브라질리언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뿌리내린 곳이다. 지역 음식에서 축제, 음악에 이르기까지 생활상 곳곳에서 옛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주도 사우바도르에서 남서쪽으로 65킬로미터 떨어진 치나레 섬 끝자락에 위치한 어촌 마을 모후지상파울루를 여행하는 중이다. 아자수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 모래사장에 지어진 고급 리조트 바로 옆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The rhythmic sounds of a berimbau fill the air as two dancers spring and whirl in combat. Around them a *roda*, or circle of spectators, has formed, with a coconut-fringed beach as a backdrop. The drummers' hands strike the taut membranes of their barrel-shaped instruments, while others clap their hands and sing the refrains of capoeira songs. This martial art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in Angola as ritual fighting and been brought to Brazil by slaves, who disguised the practice from the Portuguese by incorporating the singing and dancing we see today. I stand at the edge of the circle intently watching the dancers' cartwheel movements.

The state of Bahia is where Afro-Brazilian culture is at its strongest, with the legacy of slavery evident in all aspects of life, from the local cuisine to the festivals and music. I am in Morro de São Paulo, a small fishing village on the tip of the island of Tinharé, about 65km southwest



듯 허름한 게스트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의 레게 바와 상반된 분위기의 세련된 칵테일 라운지가 느긋하면서도 흥겨운 밤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현지인과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이 작은 어촌 마을은 1970년대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 한 상파울루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여행객들을 따라 모후지상파울루의 항구에서 마을로 이르는 모랫길을 걸었다. 차는커녕 도로도 없는 오솔길에서 사람들은 손수레에 물건을 가득 싣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레스토랑과 가게, 공예품을 잔뜩 늘어놓은 좌판이 끝없이 이어진 모후지상파울루의 심장 프라사 아우렐리아누 리마 광장은 공예품 시장이 열리는 저녁이면 사람들로 심하게 북적거린다. 나는 인파를 피해 이곳에서 후아 카미뉴 다 프라이아 가(街)를 따라 해변으로 발길을 옮겼다. 잔잔한 수면에서 홀로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는 다음 날 아침 바다로 던질 고기잡이 그물이 펼쳐진 채 잘 정돈돼 있었다.

땅거미가 지면서 사위가 어슴푸레해지니 아프로 브라질리언 음악이 해변에 흐르면서 허름한 술집들이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들이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달짝지근한 지역 특산 칵테일 카이피리냐에 시나브로 취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나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저녁 분위기에 흠뻑 젖은 채 한들거리는 해먹에 누워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느긋하고 여유로운 시간은 남북으로 1100킬로미터 넘게 펼쳐진 바이아 주 해변을 따라 오밀조밀 자리 잡은 어촌 마을 어디서든 만끽할 수 있다.

바이아 주의 작은 어촌 마을들은 선명한 아프로 브라질리언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트랑코수에서 전투 의식에 가무(歌舞)를 결합한 카포에이라를 선보이는 청년들을 만났다(왼쪽 페이지). 모후지상파울루 해변 풍경(위).

Afro-Brazilian culture is at its strongest in the fishing villages of Brazil's Bahia state, including Trancoso, where displays of capoeira are common (opposite), and Morro de São Paulo (above).

of Salvador, the state capital. Ramshackle guesthouses sit cheek by jowl with swank resorts, facing powdery beaches lined with palm trees. Laid-back reggae bars and hip cocktail lounges attract foreigners and Brazilians alike, who come here for the unhurried feel and electric nightlife. The town became a popular hangout back in the 1970s, when hippies from São Paulo flocked here for a temporary respite from the hectic Brazilian metropolis.

From Morro's harbor, I follow other travelers along a sandy path that leads into town. There are no roads (or cars), and people use wheelbarrows to transport goods along the footpaths. Praça Aureliano Lima, the square at the heart of Morro, is lined with restaurants, artisan stalls and shops and gets particularly busy in the evenings, when a popular craft market runs until midnight. From here I stroll along Rua Caminho da Praia down to the beach. A wooden boat bobs up and down near the shore, a fishing net stashed tidily in the center, ready to be cast out on the water the following morning.

As the sun sets, the rickety bars come to life, and Afro-Brazilian music flows along the beach. Crowds of youngsters sip ice-cold beers and the caipirinhas become more and more potent as the evening morphs into night. The local cocktail of choice, caipirinhas are a concoction of lime, sugar and cachaça, a Brazilian hard liquor made from sugarcane and similar to rum.

Morro's relaxed atmosphere is infectious, and I spend the rest of my time there indolently swinging in a hammock and floating around in the sea. This laid-back vibe is felt in fishing villages along Bahia's more than 1,100km of coconut-tree-fringed coastline.





격렬한 춤사위 1586년 예수회 교도들이 세운 트랑코수는 바이아 주 남부에 위치한 평화로운 마을로, 그 지역 특유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부유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상점은 느지막이 문을 열고, 이곳을 찾은 여행객 대부분은 해변가에 누워 시간을 보낸다. 이 마을 중심지에 자리한 쿠아드라두는 해변을 굽어보고 선 상 주앙 바치스타 성당 주변의 녹지를 가리키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공을 차며 뛰논다. 트랑코수에서 남쪽으로 약 38 킬로미터를 내달리면 바이아의 끝단에 위치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카라이바에 닿는다.

며칠 후 나는 모후지상파울루로 돌아와 칸돔블레 의식에 참석했다. 칸돔블레는 요루바, 폰, 반투 등 서아프리카 민속 신앙과 가톨릭이 합쳐진 일종의 혼합 종교다. 과거 포르투갈이 토속 신앙을 몰아내기 위해 선교한 로마 가톨릭과 결합해 발전했으나, 최근 몇 년간 열성 신도들이 가톨릭의 색채를 벗기고 순수 아프리카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신도들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흰 가운을 입은 사제가 다리 사이에 목재 북을 놓은 채 앉아 있었다. 낮은 음으로 시작한 북소리가 점점 고조되자, 깊은 울림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 음악소리에 맞춰 흰 예복을 입은 여사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선율과 우렁찬 노랫소리에 그녀의 몸은 전율하듯 흔들렸고, 곧 눈이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혔다. 조상신이 내려 접신한 상태로 접어든 듯했다. 그녀가 온몸을 떨며 춤추는 모습을 보는 내내 웬지 모를 현기증과 호흡 곤란을 느꼈다.

나는 방금 본 장면에 압도된 채 숙소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반추해보는 사이 창문 틈새로 베림바우의 선율이 흘러 들어왔다. 이 땅에 아프로 브라질리언 문화가 여전히 살아 숨 쉬는다는 사실을 새삼 또 확인했다. 📷 글 키키 디어 사진 엔리코 마르티노

식당과 상점이 즐비한 모후지상파울루의 중심지, 프라사 아우렐리아누 리마 광장에 어둠이 내리자 한 여인이 격렬한 춤사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왼쪽).

A woman dances during a show in Morro de São Paulo's main square, Praça Aureliano Lima, which is lined with restaurants and shops and pulses with energy in the evenings (left).

SPIRITS OF THE PAST Founded by Jesuits in 1586, the village of Trancoso, a peaceful haven on the state's southern reaches, attracts wealthy Brazilians with its easygoing atmosphere. Shops open late, and most visitors spend their days lounging around on the beach. The center of town is the Quadrado, a green space that is home to the white São João Batista Church. Children play soccer until the early evening, and capoeira sessions are often held here. About a 38km drive south is Caraíva, a slow-paced village that is home to some of Bahia's remotest (and most beautiful) stretches of coast.

A few days later, back on the Bahian mainland, I attend a ceremony of candomblé, a religion that combines elements of West African origin (mainly Yoruba, Fon and Bantu beliefs) and Catholicism. During Portuguese colonial rule, Roman Catholic elements were incorporated into candomblé in an attempt to mask the old beliefs. In recent years, devotees have tried to strip their religion of its Catholic elements in favor of purely African elements.

I follow dozens of worshippers into a small room, where priests in white robes sit on low steps at the side altars, wooden drums wedged firmly between their legs. A low drumroll becomes louder and louder; its deep vibrations filling the stifling room. A priestess wearing a white ceremonial dress dances to the throbbing music, her body convulsing to the African beats and the overpowering chant. Her eyes roll back until only the sclera are visible. She has entered a trance-like state and is now said to be possessed by ancestor spirits. As her jittering body sways down the aisle, I feel weak and short of breath.

I return to my beachfront guesthouse overwhelmed by the experience. I ponder the week's events, while outside my room the sound of the berimbau floods in through the open windows, a reminder that the country's Afro-Brazilian culture and heritage are still very much alive.

📷 By Kiki Deere Photographs by Enrico Martino

찾아가는 길

바이아 주의 어촌 마을로 가려면 상파울루에서 사우바도르 국제공항까지 운항하는 비행기를 이용한다. 사우바도르에서 모후지상파울루까지는 전세기나 투리스치쿠 터미널행 페리를 이용해 이동한다. 전세기는 20여 분, 페리는 2시간 30분 소요된다. 발렌사와 모후지상파울루를 오가는 페리도 매 시간 출발한다. 페리는 2시간, 쾌속정은 45분 정도 걸린다.

추천 숙박지

‘빌라 두스 오리자스(www.hotelviladosorixas.com)’는 모후지상파울루의 한적한 해변

프라이아두잉칸투에 자리한 매력 넘치는 부티크 호텔이다. 넉넉한 공간에 아름다운 가구를 적재적소에 비치한 객실에는 해먹을 매단 야외 발코니가 딸려 있다. 우아한 분위기의 방갈로에서는 해변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 ‘포자다 빌라 두스 코라이스(www.villadoscorais.com.br)’는 정갈한 객실과 한증막, 사우나, 테니스장, 자전거길, 승마장은 물론, 바다와 연결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수영장 ‘인피니티 풀’ 등의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추천 먹을거리

‘헤스타우란치 벨라 비다’는 이탈리아 요리와 바이아 주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코코넛 밀크와 토마토를 넣은 해산물 스투 모케카는 꼭 맛봐야 할 음식이다. 해변에 위치한 ‘마릴린 카페’는 생선튀김을 비롯한 지역 음식을 주로 선보이며, 지역 특산 칵테일인 카이피라냐를 비롯한 다양한 칵테일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중앙 광장 옆 ‘카페 다스 아르치스’는 조각 케이크와 함께 커피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추천 명소

모후지상파울루는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느긋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주요 일과다. 이곳에는 ‘프리메이라’ ‘세군다’ ‘테르세이라’

‘쿠아르타’ ‘프라이아두잉칸투’라 부르는 다섯 개의 유명한 해변이 있다. 프리메이라와 세군다가 주로 소박한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한 아늑한 해변이라면, 테르세이라, 쿠아르타, 그리고 좀 더 외진 곳에 위치한 프라이아두잉칸투는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 있어 더 호젓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군다는 밤 문화 중심지로, 히피 클럽과 비치 바, 풀몬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산중턱에 자리한 ‘푸우사르 지스쿠’는 현지인은 물론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고급 나이트클럽이다.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후지상파울루의 등대 뒤로 난 해변길을 따라 포르투갈 유적을 감상하며 17세기로 떠나보자.



대한항공은 상파울루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São Paulo three times a week.

GETTING THERE

To reach the fishing villages of Bahia, catch a flight from São Paulo to Salvador International Airport. Chartered air taxis from Salvador to Morro de São Paulo take about 20 minutes. Regular ferryboats connect the Terminal Turístico in Salvador to Morro, with trips taking about two and a half hours. Hourly ferryboats also shuttle from Valença to Morro (the passage takes about two hours); speedboats take about 45 minutes.

WHERE TO STAY

Vila dos Orixás (www.hotelviladosorixas.com) is an

attractive boutique hotel next to Praia do Encanto, a quiet stretch of beach in Morro de São Paulo. The spacious, attractively furnished rooms have wooden decks, complete with hammocks and overlooking the pool area, while the elegant bungalows offer ocean views. Pousada Villa dos Corais (www.villadoscorais.com.br) has well-appointed rooms and excellent extra features, including an infinity pool, steam room, sauna, tennis court, bikes and horses.

WHAT TO EAT

Also in Morro, Restaurante Bella Vida serves Italian and traditional



Bahian cuisine. Do not miss the *moqueca*, a delicious fish stew made with coconut milk and tomatoes. The beachfront Marilyn Café offers local dishes, including fried fish, and is a pleasant location for a cocktail, too. Bordering the main plaza is Café das Artes, a popular spot to grab a coffee and a slice of cake.

WHAT TO SEE

Morro is a very relaxed place where the main pastime is unwinding on the beach and enjoying the laid-back vibe. There are five main beaches: Primeira, Segunda, Terceira, Quarta and Praia do Encanto.

The atmosphere gets calmer (and more refined) the further down you walk, with laid-back guesthouses on Primeira and Segunda and more upmarket resorts on Terceira, Quarta and the more-isolated Praia do Encanto. Segunda is the hub of Morro's nightlife, with hippie dives, beach bars and full-moon parties. The upmarket Pulsar Disco, carved into the mountainside, is a popular nightclub. If you are after a little culture, a coastal path behind Morro's lighthouse follows the ruins of the walls of a Portuguese fortress that dates back to the 17th century.